

“페달 실수 걱정 뚝”...광주 생산 ‘기아 EV5’ 도심 누빈다

1회 충전에 460km 주행...4천만원대 ‘가속 전기차’ 새 기준 현대차그룹 최초 ‘가속 제한 보조’ 탑재...안전성 대폭 강화

기아가 국내에선 광주공장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5번째 전용 전기차 ‘더 기아 EV5’ (EV5)를 4일부터 본격 판매한다.

3일 기아에 따르면 EV5는 EV6, EV9, EV3, EV4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E-GMP 기반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고성능 GT-라인이 함께 출시된다.

EV5는 전동화 패밀리 SUV로 전기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기아 오토랜드광주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EV5 출시는 스포티지, 셀토스, 쏘울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V5는 국내 고객이 선호하는 스포티지급 크기로 기아 오토랜드광주를 이끌어갈 ‘주력 경쟁 차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V5는 전장 4610mm, 전폭 1875mm, 전고 1675mm, 축간거리 2750mm로 기존 준중형 전기차 대비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췄다.

1열에는 편안한 휴식 자세를 돕는 ‘릴렉스 컴포트 시트’가 적용됐고, 2열에는 풀플랫(Full-flat) 시트가 적용돼 일상은 물론 차박 등 아웃도어 활동에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족 단위 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도 극대화했다.

EV5는 965리터(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 SAE 기준·독일 자동차산업연합 VDA 기준 시 566리터)의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에 트렁크 바닥(러기

지 보드)을 더해 수납 편의성을 높였으며 44.4리터의 앞쪽 트렁크(프렁크)와 러기지 측면 공간도 마련했다.

81.4kWh 배터리 탑재로 460km의 주행 가능 거리도 확보했다. 또 350kW급 충전기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30여분이 소요돼 장거리 이동 때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충전할 수 있다.

기아는 EV5에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감속·정차가 가능한 ‘i-페달 3.0’을 적용해 운전 편의성과 탑승객의 승차감까지 잡았다.

현대차그룹 최초로 가속 제한 보조 기능도 탑재됐다.

차량이 시속 80km 미만 속도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오랫동안 밟는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운전자에게 팝업 메시지를 통해 경고하고, 2차로 음성 메시지 경고를 하며 가속을 제한한다.

최근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페달 오작 사고도 미리 예방한다. 페달 오작 안전 보조로 정차 상황에서 출발 시 전·후방에 장애물(차량 또는 벽)이 가까이 있을 때(1.5m 이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급조작하는 경우 팝업 메시지와 경고를 통해 페달 오작 상황을 알리고 가속 제한과 제동 제어를 한다. EV5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사양들을 반영



서울 강남구 프로젝트 스페이스 라인에서 지난 2일 EV5 미디어 데이가 열렸다. 행사장에 전시된 EV5 GT-라인. (현대자동차-기아 제공)

해 차별화된 차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아는 EV5에 반려동물용 차에 두고 내려야 하는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내 적정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반려동물이 차량 내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펫(Pet) 모드’도 적용했다.

EV5의 판매 가격은 통레인지 ▲에어 4855만원 ▲어스 5230만원 ▲GT 라인 5340만원이다. 정부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기본 트림인 에어를 기준으로 4000만원 초반부터 EV5를 구매할 수 있다.

EV5의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아이스버그 그린 ▲프로스트 블루 ▲다크 오션 블루 ▲아이보리 실버 ▲마그라 레드 ▲그라비티 그레이 ▲퓨전 블랙 8종의 유광 컬러에 ▲아이스버그 매트 그린 1종의 무광 컬러를 더해 총 9가지로 운영된다.

내장은 ▲누가 브라운 ▲스모키 블랙 ▲휴먼 그레이 ▲블랙&화이트(GT-라인 전용) 총 4가지다.

정영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은 “EV5는 정통 SUV 바디타입 기반의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비망으로 국내 EV 대중화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표 모델”이라며 “합리적인 패밀리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EV5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EV5 계약 개시를 기념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주요 거점에서 사전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EV5를 경험할 수 있는 고객초청 전시행사를 하며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025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에서 EV5 차량을 전시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기부, 美 관세 피해기업 지원에 4조 6000억원 펀드

중기 지원방안 발표...수출바우처 4200억·정부지원 최대 50%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돕기 위해 총 4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보증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63.1%에 달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미국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47.8%), ‘수출 계약 감소·지연·취소’(40.7%) 등이 꼽혔다.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이 “관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응 방식으로는 생산 비용 절감(61.7%), 마진 축소(42.3%) 등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이 주를 이뤘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현장 애로 대응, 자금 지원, 물류 지원 등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15개 지방중기청에 설치된 ‘수출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반을 가동해 피해 상황을 밀착 점검한다. 또 관세청·중기중앙회·코트라 등과 협업해 설명회·상담회를 열고 공익관세사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등 현장 맞춤형 품목 관세 상담을 강화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담 지원 등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동반성장지수를 우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미국 관세에 따른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등 4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 투입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 우량기업 기준(자본 200억원·자산 700억원)에서 자본 300억원·자산 1000억원으로 완화하고, 수출기업화 운전자금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규모를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기존 9개국에서 17개국으로 늘린다.

또 고관세·고운임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물류비가 수출 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이라고 판단하고 ‘K-수출물류 바우처’ 제도를 신설했다. 바우처를 통해 국제 운송료(샘플 포함),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 특송 소요 비용 등 물류비를 지원한다.

국제운송 서비스 지원 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2026년까지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곳을 구축해 현지 소비자 대상 배송 속도를 높이고 재고 관리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 상담 등 수출 바우처 예산도 42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에 관세 컨설팅, 미국 특허·특허·지재권 지원,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피해가 큰 업종에는 1억원 한도의 바우처 정부 지원금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린다.

중기부는 단기적 관세 대응을 넘어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돕는 육성 모델을 마련하고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체험·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수출 거점을 만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정책 정보는 합·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KJB우수기업임직원대출 출시

최대 5000만원·최장 10년 상환

광주은행은 “지난 1일 ‘KJB우수기업임직원대출’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서울보증보험(SGI) 및 우수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우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공무원직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로,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수수료 없이 원할 때 중도상환이 가능해 고객 부담을 줄였다.

대출 금리는 전월 카드사용 실적에 50만원 이상인 경우 최저 연 4.04%포인트(p)까지 적용된다. 대출 신청은 광주Wa뱅크 앱을 통해 가능하며,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고객이 SGI 앱을 통해 직접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눈물 젖은 빵? 밥값보다 비싼 빵값

6개월째 6%대 상승...미국·프랑스 보다 비싸

빵값이 6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빵 물가지수는 138.6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3배 이상에 달한다.

SKT의 통신 요금 인하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 통계청이 추정한 소비자 물가상승률(2.3%)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빵 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2023년 7월(8.6%)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빵값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의 1% 미만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12월 3.3%, 올해 1월 3.2%, 2월 4.9%로 오르더니 3월부터는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3월에 6.3%로 경중 뒤편고 4-7월은 각 6.4%였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2022년 9월 작년 동월 대비 45.5%까지 급등한 뒤, 이듬해 9월(-0.4%)과 지난해 9월(-3.8%)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이후에는 -1.4%~1.3% 움직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달

걍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랐고 8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0% 뛰었다.

국내 빵값이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29로, 미국(125), 일본(120), 프랑스(118)보다 높았다. 100g당 평균 빵 가격도 한국(703원)이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호주(566원)보다 비쌌다.

보고서에는 국내 베이커리 전문점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분석도 담겼다. 매출은 2020년 6조 240억원에서 2022년 7조 5700억원으로 2년 사이 25.7%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75.3% 늘었다.

보고서는 최종 결론을 비공개했지만, 주요 원재료가 가공·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신입사원 직장 적응 도와드려요”

참여기업 모집...25~26일 워크숍

광주경총은 “청년 신입직원 직장 적응 프로그램 상호 교류 워크숍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신입 직원 ‘직장 적응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광주경총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사 초기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위해 직장 내 청년 친화 조직 문화 조성 및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신입 직원 30여명 내외로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담양에서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워크숍을 통해 지역 기업이 청년 친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등 일자리 경쟁력 확보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워크숍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총 일자리사업부(062-654-342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84.42 (+12.07)
↑ 코스닥	796.81 (+2.81)
↑ 금리(국고채 3년)	2.475 (+0.025)
↑ 환율(USD) (오후 5시 00분 기준)	1391.05 (+0.05)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하니...5대은행 중 우리·KB 가장 ‘인색’

인하폭·감면액 꼴찌는 우리·농협

5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연합회는 3일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올린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했다. 금융소비자는 취직·승진·소득증가 등을 근거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은행에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NH

농협은행(42.9%)·신한은행(35.4%)·하나은행(31.0%)·KB국민은행(26.2%), 우리은행(17.7%) 순으로 높았다.

기업 대출까지 더한 전체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 역시 NH농협은행(42.6%)·신한은행(34.5%)·하나은행(31.1%)·KB국민은행(26.2%)·우리은행(17.8%) 순이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평균 인하 폭은 하나은행(0.35%p)이 가장 컸고, NH농협은행(0.29%p)·KB국민은행(0.28%p)·신한은행(0.24%p)은 0.2%p대 감면율을 기록했다. 우리은행(0.14%p)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요구에도 불

구하고 깎아준 금리가 평균 0.1%p 남짓에 그쳤다.

금리인하 요구 수용을 통한 가계대출 이자 감면액 기준으로는 신한은행(57억원)이 1위였다. 이어 하나은행(35억원)·우리은행(32억원)·KB국민은행(26억원)·NH농협은행(12억원) 순이었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 인하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제주은행(9.2%)이었고, 케이뱅크(10.0%)·우리은행(17.7%)이 뒤에서 2~3위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AI 디지털 혁신 공모 아이디어 공유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지난 2일 ‘제2회 AI 디지털 혁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및 우수 사례들을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AI 디지털 혁신 공모전은 디지털 혁신의 일상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참가 범위를 기존

공사 내부 직원에서 광주·전남 소재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확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44건의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가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3건, 우수상 6건, 장려상 8건 등 17건이 선정됐다.

공사 내부 최우수상은 ‘인공지능 활용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보고서 작성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사고 예방 목적에 있어서 현장 활용 가능성과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학(원)생 부문 최우수상에는 ‘씨앗톡’이 선정됐다. 씨앗톡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역, 작물, 농지 등 맞춤형 정착 정보와 지원 정책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으로 지역소멸 시대에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장윤영 기자 zzang@